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 본토와의 대비를 통한 제주 인물전설의 의미 -

玄 吉 彦*

目 次

I. 머리말	IV. 힘내기형전설과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II. 힘내기형전설의 개략	장사전설
III. 제주도 힘내기형전설	V. 장사전설로서의 오누이장사전설

I. 머리말

제주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본토와는 판이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같은 모티브를 가진 전설들의 변이 양상도 본토와는 크게 다르다. 이것은 전설 향유 계층의 의식과 생활의 차이 때문이다. 특히 본토의 전설들이 대부분 인간과 세계와의 갈등, 대결에서 인간의 패배 또는 좌절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제주의 전설들은 세계와의 갈등, 대결에서 새로운 극복의 방법을 모색, 세계와의 화합을 추구하는 비극의 극복이라는 특이한 전설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예는 아기장수전설과 1) 오누이힘내기형전설의 제주도 변이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형의 전설은 전국적으로 두루 퍼져 있고, 또한 그것이 모두 폐쇄된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專任講師.

註 1) 아기장수형전설의 제주도 변이에 대해서는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韓國言語文學』 19輯, (韓國言語文學會, 1979), (pp. 289~306)에서 논의하였다.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²⁾ 이들의 변이형에 대한 고찰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더듬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힘내기형전설의 제주도에서의 변이 양상을 살피고, 그러한 변이가 제주도 인물전설의 한 특징으로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법에 대한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힘내기형전설은 장사인 오누이 이야기로서 여걸(女傑)전설 또는 여장사(女壯士)전설의 한 부류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여장사전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한다.

이 글은 힘내기형전설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를 본토 전설과 제주 전설의 구조 대비를 통하여 밝혀낼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는 전설을 이루는 모든 요소의 의도적인 총화라는 다소 한정된 입장을 취하겠다. 전설은 한 인물의 이야기입에 틀림없으므로 전설의 요소는 한 인물의 삶을 형상화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되어진 의도적인 것이다. 물론 전설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자연적인 결합의 형태로 한 이야기를 꾸며 내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는 향유자 나름의 내면 의식이 깊게 깔려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밝히는 일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각 구조 요소의 분석에서 가능할 것이다.

II. 힘내기형전설의 개략

힘내기형전설은 많은 변이형이 있지만은 대략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정리할 수 있다.³⁾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기장수전설에 대한 趙東一이 “自我와 世界의 關係에 대한 傳說的 說問”, (『語文學』 27 號, 韓國語文學會, 1972.10)과 沈晶雙이 “傳說的 文學的 構造”, (『文學과 知性』 27 號, 文學과 知性社, 1977.봄)에서, 오누이 힘내기전설에 대한 筆者의 “힘내기型傳說的 構造와 그 意味”(『延岩 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1980.9.)에서 言及되었다.

3) 崔來沃, “韓國傳說的 變異樣相”, 口碑文學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p. 25 ~ 26 참조하였음.

옛날 어느 집에 홀어머니가 사립됨이 비범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았다.
 (발단) 하루는, 오누이가 서로 한 집에는 살 수 없으니 힘내기를 하여 지는 자가 죽기로 하였다. 그 내기는 오라비는 당일로 서울 갔다오고 누이는 성을 쌓기였다.(갈등) 내기가 진행되는 동안 결국 누이가 오라비보다 먼저 성을 쌓아 가게 되자, 홀어머니는 이왕이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딸의 작업을 늦추게 하였다.(위기) 결국 오라비가 이겼고 누이는 죽게 되었다. 뒤에 오라비는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게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였고 아들과 딸을 잃은 홀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결말) 지금도 누이가 쌓다 만 성이 남아 있고, 오라비가 죽은 비극의 증거가 남아 있다.(증거물)

이러한 줄거리를 가진 힘내기형전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화소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플롯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되어 있다.

- (1) 발단 : 홀어머니가 비범한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다.
- (2) 갈등 : 두 오누이는 한 집에 살 수 없어 내기를 하여야 하였다.
- (3) 위기 : 어머니가 부당하게 아들 편을 들었다.
- (4) 결말 : 누이가 패배하여 몰락한다. 또는 오라비와 어머니도 함께 몰락한다.
- (5) 증거물 : 비극의 증거물이 남아 있다.

그런데 결말에서 누이만 패배하여 몰락하는 경우와 부당한 누이의 패배를 안 오라비와 자신의 부당한 관여를 뉘우친 홀어머니도 같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형태는 아마 누이만이 패배 몰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

이러한 전설의 구조는, 비범한 오누이를 자식으로 가진 홀어머니가 두 오누이의 대립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아들 편을 드는 부당한 관여로 말미암아 비극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데, 홀어머니와 누이와 오라비라는 세 사람의 인간 관계와 그 관계의 파탄이란 면에서 전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전설에서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화소(話素)는 여러 모양으로 변이되어 있으나, 이야기 전체에서 인물들의 삼각 관계와

4) “힘내기型傳說의 構造와 그 意味” (pp. 674~677) 참조.

중재의 실패로 인한 그 관계의 파탄이란 전체적 구조에는 큰 변함이 없다. 이런 점은 힘내기형전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시대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향유되어 지는 가운데서 향유자들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화소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근본적인 문화 환경의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핵심 구조 자체를 지켜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전설에서는 그 <중재의 실패로 인한 삼각 관계의 파탄>이란 구조 자체가 변모되었다는 데 관심을 가질 만하다.

본토의 힘내기형전설은 화합이 불가능한 두 세력의 갈등, 대립으로 시작된다. 우선 발단에서 홀어머니가 장사인 오뉘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홀어머니라는 한 집안의 가장은 극히 나약한 존재이다.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비범한 오뉘를 데리고 살게 되었다. 이 비범성은 초일상성을 의미한다. 이 오뉘는 홀어머니의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홀어머니가 감당하여 수용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비범성은 곧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였음을 말한다.

둘째, 이들 오뉘가 한 집에서는 살 수 없다는 대립의 문제이다. 이들이 한 집안에 동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능력에 의한다. 홀어머니가 그들의 비범성을 중재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홀어머니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뉘의 싸움은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범한 인물들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의 부재를 생각할 수 있다. 비범한 인물들은 삶의 조건 충족을 위하여 동기간에 싸움을 하여야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하여 어머니는 속수무책이다. 가정의 윤리를 제일로 삼았던 우리의 과거 현실에서 어머니의 이러한 무능은, 그 자식들의 초인적인 능력 자체가 현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뜻한다.

셋째, 어머니의 무능과 더불어 그의 부당한 관여로 인한 비극성의 심화이다. 오뉘의 싸움은 그들의 능력에 의한 정당한 대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른 패한 자의 몰락은 약속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오뉘의 싸움과 한 편이 패하여 몰락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함께 동거하는 것보다는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적이기보다는 연민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일 뿐이다. 그것은 둘의 합의에 의한 엄연한 약속에 따른 것이기 때

문이다. 동거가 불가능하고 대결에 의한 한 편의 패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오누이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수용할 가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비극이 도사려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정상적인 승부의 파탄이다. 오누이가 내기를 하는데 누이가 이길 상황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딸의 작업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이길 자는 패하고 패할 자는 이기게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 오누이 중에 패한 자가 몰락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설사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적인 차원의 비극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승패의 파탄으로 인하여 이길 자가 패하고 패할 자가 이겨서 몰락의 주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의미의 비극이다. 어머니가 부당하게 오누이의 싸움에 관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값이면 아들을 이기게 하고 싶다는 사회적인 통념이다. 사회적인 통념이 어머니로 하여금 정당한 싸움을 방해하고 승패를 뒤엎어 버리게 했던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비극이 있다. 누이의 패배와 몰락은 단지 어머니에 의한 것이기 전에 하나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비리(非理)이다. 어머니는 오누이의 혈육이라는 의미보다는 정당한 싸움을 파탄시키는 <사회적 비리> 그 자체이다. 여기에 닫힌 사회 속에 살았던 비범한 인물들의 비극이 있다.

넷째,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누이의 몰락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 많은 전설들이 이야기를 더 늘려간다. 그것은 누이의 패배와 몰락에 대한 향유자들의 항변에서 기인한다. 사실은 누이의 패배와 몰락으로 끝났지만 민중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야기를 덧붙여 만든다. 그것은 사회적 비리로 반윤리적인 횡포를 거부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래서 다시 부당한 승리를 깨달은 오라비의 죽음과 그에 따라 다시 부당한 관여로 승패를 번복시킨 어머니에게 윤리적인 참회를 하도록 만든다. 결국 셋은 모두 몰락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죽음은 인정적 차원에서는 더 극심한 비극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비극의 해소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⁵⁾

5) 嶺 論文, pp. 674~677.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한 구체적인 인물의 이야기에서 힘내기 모티브가 차용 접합되면서 이런 대결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Ⅲ. 제주도 힘내기형전설

제주 지역의 힘내기형전설은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힘내기 모티브가 접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여성의 힘셈을 형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1) 오찰방전설⁶⁾

오찰방 부친은 튼튼한 아들을 낳으려고 부인이 임신하자 소 열두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다음에 다시 부인이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은 것은 아들이었다. 오찰방은 자라면서 힘이 남달리 세었다. 섬 안에서는 씨름판이 곳곳에서 열렸는데 오찰방은 항상 독무대였다. 그는 점점 오만해져 갔다.

어느날 씨름판에 동생을 뒤따라 누이가 남장을 하고 나가 동생과 겨루었다. 동생이 지고 말았다. 그러나 동생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누이는 동생의 짚신을 서까래 아래 끼어 놓고 그것을 찾아 신도록 하였다. 오찰방은 그 신을 찾았으나 꺼낼 수가 없었다. 누님이 꺼내리, 그 비로소 누님의 힘을 알고 자신의 태도를 고쳤다.

후에 동생은 서울에 올라가 큰 도적을 잡아 찰방 벼슬을 하였고 어린 때에 그의 겨드랑이에 낱개가 돋았었다고 한다.

(2) 시흥리 현씨남매전설⁷⁾

지금 성산읍 시흥리 '당팻집'이라는 현씨 종가집에 옛날 대봄이라는 장사

6) 현용준, 『濟州島傳説』, (瑞文堂, 1976), pp. 83~92. 1981.7.16., 안덕면 덕수리, 이화옥(여; 80)구술.

7) 1981.1.21.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75)구술. 현용준, 『뫼』(pp. 207~210)

가 있었다. 그 부친이 이 마을에 정착한 후 부인이 임신을 하자 힘센 아들을 낳으려 소 열 마리(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다시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또 딸을 낳으면 어찌할까 해서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딸은 물길러 가다가 들소를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힘이 세었다. 그리고 동생도 씨름판에 나가서 독판을 칠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어느날 누이는 남장을 하고 동생을 뒤따라 씨름판에 갔다. 동생의 독무대가 되자 그 마을 청년들이 동생을 해치려는 음모가 무르익었다. 그때에 누이가 나서서 동생과 겨워서 이겨 버렸다. 동생은 씨름에 진 것을 탄복 하였으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후에야 누님의 정체를 알았다.

(1)(2) 외에도 흥리 고대각⁸⁾과 사계리 김초시전설⁹⁾에서도 위와 비슷한 오누이의 씨름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전설을 이루는 중요한 모티브는 네 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지 그 모티브가 각각 다른 인물의 이야기에 접합된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 네 편의 전설도 구술자의 구술 태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과 같이 오찰방의 이야기 가운데 오누이간의 힘겨루기 이야기가 하나의 삽화로서 들어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2)와 같이 장사인 누님의 이야기에 촛점을 두면서 오누이의 힘겨루기가 이야기되는 경우이다. 오찰방의 전설에서는, 오찰방이 어려서부터 비범한 인물로 나막신을 신고 산방산을 오르내리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이상히 여긴 그 부모배가 술을 먹여 잠 재워놓고 보니 저드람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이야기며, 서울에 올라가 누구도 못 잡는 큰 도적을 잡고 벼슬을 한 이야기 등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포함된다.

반면에 시흥리 현씨남매전설에서는 누님이 장사라는 것이 이야기되면서 남매간의 힘겨루기도 포함된다. 즉 (2)에 있어서는 그 누님인 여장사에 촛점이 있다. 흥리 고대각전설은, 고대각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마는 김초시이야기에서는 우선 그 누님인 사계 힘센 할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8) 1981.1.22, 1981.5.11., 서귀포시 호근동, 김두옥(남; 70) 구술하는 것을 필자가 채록.

9) 1981.5.11, 1981.5.11.,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마을, 김재현(남; 86) 구술, 현용준, 곽광민 채록.

오누이의 이야기로 옮겨 간다.

고대각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 ① 소를 잡아 먹고 딸과 아들을 낳았다.
- ② 산더(陸稻)를 갈아 비여놔 두었는데 어떤 장사가 밤에 와서 고대각이 보는 데서 모두 지어가 버렸다.
- ③ 고대각은 후에 그 값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아왔다.
- ④ 씨름판에서 고대각이 늘 이겼다.
- ⑤ 그 누이가 그걸 알고 동생에게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하여 남장으로 동생과 씨름하여 이겨 상금을 받아왔다.
- ⑥ 후에야 고대각은 누님의 정체를 알았다.

김초시 오누이의 전설에서는 구술자의 구술 과정에서 이야기의 촛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처음에 조사자가 힘센 장사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청하자, 우선 그 누이, 사제리 힘센 할망 이야기를 한 후에 오누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물방애(연자마) 둘을 들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제리 힘센 할망이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누이힘내기모티브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 전설들은 혈육간에 힘내기에 이야기의 촛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힘을 가진 장사를 형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모티브가 이야기 전개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육지부의 전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제주도 전설의 한 특징인, 비범한 인물의 이야기로서의 힘내기형전설을 이해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제 본토와 제주도의 전설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면 인물전설로서의 힘내기전설의 의미가 더욱 뚜렷이 밝혀질 것이다.

Ⅳ. 힘내기형전설과 제주도의 오누이장사전설

육지부의 힘내기형전설은 <내기>에 촛점이 있다. 내기는 반드시 승패

가 결정되고 승패에 따른 보상과 몰락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기에 전설로서의 흥미가 있고, 패한 자의 몰락에 따른 비극적 결말이 향유자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그것은 힘내기 자체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누이가 동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씨름을 하게 된다. 여기에 갈등의 심화란 본토 설화의 비극성에 비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힘겨림이란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전설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구조 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오누이힘내기전설

- A. 죽장탐의 유래 (영남의 전설, 유증선)
- B. 밀력탐과 왕궁탐 (王宮塔) (민속종합보고서. 전북편, 문공부)
- C. 김덕령과 오누이 힘내기 (전북민담, 崔來沃)
- D. 날개 난 오누이 힘내기 (전북민담, 崔來沃)
- E. 남매의 힘재주내기 (大德郡誌, 大德郡)
- F. 아미산傳說 (国文学全史, 李秉岐)

(2) 오누이장사전설

- A. 오찰방
- B. 현씨 남매
- C. 흥리 고대각
- D. 김초시 누이

1. 인물

서사 양식의 주체는 인물에 있다. 누구의 이야기냐는 문제는 이야기의 성격을 제시해 준다. 또한 이야기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발전되어 나간다.

힘내기형 전설의 인물들은 불특정인물들이다. 특정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의 허구성이 강하겠지마는, 그것이 또한 더욱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홀어머니와 비범한 오누이이다. 홀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등장하기도 하나 그것 때문에 의미의 차이는 없다. 홀어머니나 아버지나 간에 오누이의 부모로서의 이들의 등장은 비범한 오누이의 환경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즉 오누이의 가정 형편과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오누이는 가난한 하층 계층의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재주가 비상하거나(A·B·C), 사회에서 거부하는 날개가 저드람이에 달렸거나(D), 비범한 재주를 가졌거나(ㄷ), 힘이 센 사람들(ㄹ)이었다.

이와같이 평민의 집안에서 비범한 인물, 더구나 오누이가 출생하였다는 것부터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신분 체제가 엄격하였던 사회에서, 평민의 집안에서 비범한 인물이 출생한다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다. 이는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고, 더구나 당사자인 그 집안에서도 결코 바랐던 일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장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자의적으로 아기를 거부했던 것을 전설은 보여주고 있다.¹⁰⁾

이들의 비범성은 저드람이에 날개가 달린 장수 아기의 비범성과 통한다. 그것은 단지 힘과 재주가 뛰어났다는 사실보다 초인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 오누이의 내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들은 큰 돌을 날라다 10층탑을 쌓고 딸은 동산쌓기 내기를 하거나(A), 미륵탑을 쌓기(B), 모시를 갈아 그것으로 모시를 짜서 도복을 짓고 역새를 베어서 무등산 두르기(C), 고개 너머 성쌓기와 쇠신 신고 서울 다녀오기(D·E·ㄹ), 등 육지부의 힘내기형전설의 내기는 초인적인 작업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내기는 비현실적이지만은 그럴수록 이들의 비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들의 비범성은 이들이 태어난 집안, 또는 그 부모들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난한 홀어머니의 처지로서는 이들 비범한 오누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은 결국 이들 오누이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립 갈등은 심화되어 비극은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비범성을 부모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재의 의도가 없고 능력도 잃게 된다.

10) 아기장수전설에 대한(註 1.2) 앞에 제시한 글들 참조.

제주도의 오누이장사전설

만약 흠어머니로 대신되는 제3세력이 이들을 중재할 수 있었다면, 오누이는 화해를 이루고 동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제3세력의 약화라는 문제는 비범한 인물들을 수용할 수 없는 불모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육지부 힘내기형전설의 인물들은 상황과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 오누이장사전설에서, 장사 오누이가 그 부모들의 원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점이 육지부 전설과 다르다. 부인이 임신을 하자 힘센 아들을 낳기 위하여 소를 열 마리 또는 열두 마리를 잡아 먹인다. 소를 잡아 먹인다는 일은 힘센 자식을 얻기 위한 가장 진지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 결과로 낳은 자식은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성을 가진 이야기는 바로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소를 더 많이 먹고 낳은 딸이 더 힘이 세다는 것도 합리적인 점이다.

이와같이 제주의 오누이장사전설은 부모 의지에 의하여 장사인 두 오누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민의 집안에서 장사를 원했다는 사실이다. 평민의 집안에서는 장사의 출현을 금기처럼 생각하는 사회 현실에서 이런 부모들의 생각은 사회 통념을 거슬리는 파격적 행동이다. 여기에 제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취적인 의욕을 찾을 수 있다. 장사인 아들을 통하여 현재의 삶을 극복해 보려는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의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본토의 힘내기형 전설이 평민의 가계에서 비범한 인물을 거부하는 전통적이고 고착된 삶의 양식을 표현한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소를 잡아먹이면서까지 장사를 원했던 제주 전설은, 장사를 통한 현재의 삶의 극복이라는 제주 사람들의 미래 지향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전설이 바로 인물을 기다리는 제주인의 마음을 형성화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얻은 인물들이, 갈등을 통한 비극적 몰락이라는 힘내기형전설의 구조와는 판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긍정적인 인물들이 설정될 수 밖에 없다.

첫번째는 낳고 보니 딸이었다. 다시 임신을 하자 아들에 대한 열망에 다시 소를 잡아 먹인다. 생각 같아서는 다시 열 마리를 잡아 먹이고 싶었지

마는, 다시 딸이 날카봐서 몇 마리 적게 잡아 먹인다. 그 결과 아들을 낳았다. 그는 장사였다. 온 섬안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누이가 그보다 더 힘이 세었다. 힘의 우열은 잡아 먹인 소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 합리적이다. 또한 임신한 때 소를 잡아 먹여서 장사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제주 전설에서 장사의 출현은 부모의 소원과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현실성을 갖는다.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의 행사도 사실성을 띤다. 씨름판의 설정은 가장 리얼한 것이다. 평민들 간에서는 장사의 배출이 흔히 씨름판에서 이뤄졌으며 그 씨름판은 개인의 힘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제기이면서, 마을과 마을간의 힘의 대결이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는 썸돌, 또는 들음돌이라는 힘내기를 하는 큰 돌이 있어, 동네 젊은이들의 힘을 기르고 그 우열을 판별하였으며, 때로는 마을과 마을 간의 힘겨루기도 이뤄지곤 하였다. 씨름판도 마찬가지다. 전설에는 네 편 모두 제주 삼읍 장사들이 모여 연례적으로 씨름판이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에 따른 삼도 후하였지만, 승패에 따라 한 마을의 의기가 문제가 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 오누이장사전설이 현실성 위에 이뤄졌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는 육지부 힘내기형전설에서 내기의 성격이 비현실적임에 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제주도 전설에서 부모의 위치는 우선 장사 자식을 소원하여 얻었다는데, 그네들의 의지가 나타나며, 그러므로 자연 두 오누이장사를 중재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오누이의 힘을 겨뤄 보려고 한 전설도 있으나(B), 나머지 세 편은 누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생과 씨름을 하게 된다. 여기에 장사인 누님의 모습이 더 부각되는 소이가 있다.

제주도 오누이장사전설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유지되고 누님과 오라비의 관계도 유지된다. 이것은 제주 전설이 바로 인간의 실생활에서 이뤄진 인물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본토 전설은 부모와 지식, 오누이의 인륜적 관계가 파탄된다. 그것은 비범한 오누이 자체가 부모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출현한 인물이었고, 부모의 처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었고, 한 집안에 함께 오누이가 동거할 수 없는 불화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머니와 오누이라는 삼각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중재의

위치에 있는 어머니가 한 편에 가담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결국 셋은 모두 비극적인 몰락을 감수하여야 한다.

2. 풀꽃 (힘내기 과정)

힘내기 동기는 갈등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곧 풀꽃을 엮어가게 된다. 이 갈등 관계는 본토 전설이 더 긴박하다. 그것은 평범한 가계에 비범한 오누이의 출현이라는 인물의 설정에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이 인물들이 동거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은 둘의 대립을 야기시킨다. 오누이가 서로 제주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 (B), 어머니가 시키거나 (C), 서로 쳐드람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D), 서로 심하게 다투거나 (E), 힘을 서로 자랑하였기 때문에 (F), 목숨을 걸고 힘내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불가피성은 승패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 편이 몰락되어야 하는 비극적 결말을 예견하게 된다.

반면에 제주 오누이장사전설에서는 누이가 오라비의 방자함을 제어하기 위하여 (A), 오라비가 위험을 당할까 봐서 (C·D), 아버지의 의도에 의하여 (B) 오누이의 힘내기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가 성취되는 방향에서 풀꽃이 엮어나가게 된다.

힘내기의 내용도 본토 전설이 초인적이고 비현실적임에 비하여, 제주 전설은 씨름을 통하여 힘을 겨루는 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다.

힘내기 과정에서 본토 전설은 부당한 승패가 이뤄진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누이가 응당 이겨야 할 것인데도, 어머니의 부당한 관여로 승패가 역전되어 오라비가 이기게 된다. 어머니가 부당하게 두 오누이의 싸움에 관여하여 오라비가 이기도록 한 데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다. 즉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그래서 딸이 이겨가자 아들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작업을 지연시킨다. 뽕뽕 뽕는 죽을 날라다 먹게 하면서 (B), 일이 다 될 무렵 딸에게 밥상을 차리게 하여서 (C), 팔죽 또는 콩밥을 먹게 하여서 (D·E·F), 딸의 작업을 지연시키고 결국 아들이 이기게 만든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싸움의 승패를 역전시키게 하는데, 이는 바로 사회 상황의 비리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 전설에서는 응당 힘센 누이가 이긴다. 그것은 본래 씨름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라비의 방자한 태도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A), 마을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을 모면시켜주기 위하여(C), 상금을 제대로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하여(D) 누이가 남장을 하여 나가 씨름을 하였고, 또한 이겨 원래의 의도를 충족할 수 있었다.

결말은 본토 전설은 오뉘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비극적임에 비하여, 제주도의 경우는 대립 갈등이 아니라 오뉘의 화합을 통한 발전적 제기가 마련된다. 또한 이길 자가 이기는, 즉 힘의 우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합리적 결말이 이뤄진다.

힘내기형전설에는 이길 자가 패하고 패할 자가 이기는 부당한 승패에 의하여 오뉘간의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즉 전설 향유자들이 부당하게 몰락한 누이의 편에 서서 오라비와 어머니를 증오하게 되면서 다시 오라비와 어머니의 몰락을 가져오도록 한다. 여기에서 두 오뉘의 갈등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게 된다.

3. 증거물과 완결성

이러한 민중의 관심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나타낸다. 본토 전설에서 누이의 부당한 몰락에 대한 전설 향유자들의 관심은, 비리에서 이뤄진 비극적인 누이의 몰락을 영원한 증표로 제시해 놓음으로써, 그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그 비극을 극복하려 한다. 즉 비극의 극복을 시도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적 경이를 낳는데 이러한 경의를 통하여 정신적 보상을 도모한다.

지금도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자를 짓고 활을 쏘았다고 하며(A), 미륵사지탑 옆 갈대밭에 커다란 돌기둥이 50m 거리를 두고 서 있고(B), 딸이 쌓다만 산성(山城)이 황량하게 널려 있고(E), 아들이 던진 칼이 아미산에 박혀 움푹다리를 만들고 칼날은 녹아서 그 앞 냇물이 되었다(F). 이러한 증거물이 남아있어 오뉘의 갈등 몰락의 이야기는 지명전설로 고착되면서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된다.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찰방은 실제 인물이

며 현씨 남매의 후손은 시흥리에 당팻집이라고 해서 지금도 현씨의 종가집으로 있다. 흥리 고대각도 그 누이가 호근리에 시집을 왔었다고 구술자는 말하였고, 김초시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실제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즉 제주도의 전설에서는 구체적인 실제 인물의 이야기로 그 신빙성을 확신시키면서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지부의 힘내기형전설은 하나의 완결된 전설로서 독자적인 전설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제주도 오누이장사전설은 한 장사의 일생에 곁들여진 하나의 에피소드이다. A는 오찰방 전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누이와의 씨름이야기이고, B에서는 누이가 장사임을 이야기하면서 곁들어 오라비와의 씨름이야기가 전개되었다. C도 역시 장사 고대각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오누이 씨름이야기가 덧붙여 졌다. 이렇게 제주 지방의 힘내기모티브를 가진 전설들은 장사전설의 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장사인 실제 인물의 이야기에 그 인물의 비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토의 힘내기모티브가 접합되어서 이런 오누이장사전설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누이장사전설에서는 제주 장사전설이 갖고 있는 삶의 진지함과 대립, 갈등이 화합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V. 장사전설로서의 오누이장사전설

본토의 힘내기형 모티브가 제주에서는 인물전설에 접합되면서 그 본래의 비극성을 극복, 장사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모티브로 변이되면서 갈등 대립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힘내기 전통적 구조가, 화해를 통한 갈등 대립의 극복이라는 발전적 계기를 이루는 구조로 변이되었다.

이것은 실제 살았던 장사 인물들의 장사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내기모티브를 차용하였기 때문이며, 여기에 제주 사람들이 장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장사를 기다리는 마음은 현실 극복의 한 방법이었으며 진지한 삶의 양식이었다. 불모의 역사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장사나 비범한 인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상황 극복을 위한 삶의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기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소를 열 마리나 잡아 먹일 수 있었다. 그것은 장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특히 제주에는 인물전설이 많다. 여성으로 장사인 인물은 위에 소개한 전설 외에 심돌 강씨할망, 남원읍 태흥리 경주 김택 며느리, 구좌읍 세화리 문만호(文萬戶) 며느리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들 여인들은 시집와서 물길러 가다가 길가에 놓여진 남자의 들음들을 쉽게 들어 던져 버렸다는 들음들모티브를 통하여 여인들의 힘셈을 형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힘셈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에는 남자의 힘셈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들 인물들이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음을 볼 때 힘이 세다는 것이 바로 삶의 한 방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네 전설에서 오찰방, 현씨, 김초시, 고대각 같은 인물들이 현실 사회에 긍정적인 인물로 살아갔다는 점과도 통한다. 오찰방은 서울에 올라가 찰방 벼슬을 하였고, 김초시도 벼슬을, 시흥리 현씨도 구술자에 따르면 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고 하였다. 비범한 인물은 고착된 현실 상황과 대치적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현실과 더불어 삶의 방법을 찾으며 살아갔다.

이러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타협에서 온 태도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진지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오누의 힘의 대결이 두 장사 중 승패에 따른 몰락이라는 측면보다는 이긴 자와 패한 자 모두 그들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결의 관계를 극복, 화합을 모색하며 살길을 찾아 살았던 진지한 삶의 한 양식을 제주 오누이장사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